

현장시선



고 태 언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지방선거가 끝나면 시민들의 관심도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선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후보들이 선거 기간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며 앞으로의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의 지방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약 실천의 책임이 무겁다. 공약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이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약은 약속, 이제는 실천으로 답해야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교통혁신, 청년정책, 돌봄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약속들은 단순히 환경이나 복지라는 개별 분야의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도시이자 탄소중립 선도지역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에 지방정부의 공약 역시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실천 과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예산과 실행계획, 도민과의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

들어 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공약 이행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쌓일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지방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학교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가치와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시민사회와 자원봉사단체는 생활 속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과 기업, 교육기관, 시민이 함께할 때 공약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변화시키는 정치이다. 그래서 공약은 숫자로 평가받기보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돼야 한다. 아

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깨끗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약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이다. 도민은 선거에서 약속을 믿고 한 표를 행사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 믿음에 실천으로 답할 차례다.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는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잊혀지는 선언이 아니라, 임기 내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는 지방정부만이 도민의 신뢰를 얻고, 제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사설

마사회 제주 유치, 위 지사가 직접 나서라

정부는 하반기 지방으로 이전할 2차 공공기관을 확정한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한국마사회를 1순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마사회 이전은 제주 뿐만 아니라 경남과 전북, 광주와 행정통합을 이룬 전남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늦어도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실무적인 사항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지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나 조율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내부 논의로만 진행되고 있어 이전 윤곽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를 보면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양수산

부 부산 이전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부지 확정이다.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이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말 산업 집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말 사육부터 생산·육성·조련·경마에 이르기까지 말산업 전 주기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렇지만 마사회 이전은 정무적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다. 따라서 위성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마사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무부서에 맡겨둬서 될 사안이 아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만큼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결핵 퇴치, 적극 나서도 모자랄 판에...

초등생 시절, 예방접종은 공포의 대명사였다. ‘불주사’로 불리던 결핵 예방접종(BCG)은 특히 악명이 높았다. 주사약이 떨어지기를 염원하며 서로 양보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1954년 인구 2000만명 중 130만명이 활동성 결핵 환자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만 연간 5만명에 달했다. 선진국 반열로 접어들면서 결핵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 2025년 기준 결핵 환자는 1만7070명이다. 14년 연속 감소세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많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위험은 여전히 내재적이다. 신규 환자의 58.7%가 60대 이상에서 발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이유다. 결핵균이 느리게

증식하는 탓에 치료 기간도 길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서귀포의료원이 2년 넘게 활동성 결핵 환자 진료를 도외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료원과 함께 결핵 안심벨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두 곳 중 하나다.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바람에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169명 중 서귀포의료원이 신고한 환자는 1명에 그쳤다. 비슷한 상황에서 잠복 결핵과 활동성 결핵 환자를 모두 수용한 제주의료원과 비교하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숙원사업 중 하나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수염에 대한 단상



정만호
한라일보 독자

태종의 외손자인 철부지 권총(權聰)이 졸고 있는 노신(老臣)의 수염을 노리게 갈로 잘라 버렸다. 국법이 준엄하여 나이 어린 권총은 남대문 밖에 수년간 감금되었다. 을미개혁 교서 중, 단발령은 신체·효를 중시하는 '신체발부 사상'의 유교적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유림을 비롯한 국민들의 저항이 요원의 불길 같았다. 고대 그리스인은 수염을 풍성하게 길렀고, 로마인은 대체로 깔끔하게 면도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산 시지프스가 죽은 뒤

지옥에서,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기 직전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이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탈모에는 가발을 권장하는데, 수염은 호불호가 갈린다. 수염은 하루에 0.3~0.5mm 자란다. 빨리 자라면 매일 조식으로 면도하고, 태만하면 자기 관리가 부족해 보인다. 중·고교 교칙으로 시작된 수염과의 전쟁은 '시지프스의 바윗돌 굴리기 형벌'인가. 황혼기에도 피부 트러블, 결벽증에 시달린다. 수염과 수 십 년을 싸워온 노익장들이 새삼 레이저 제모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리스식이나 로마식이나, 개인 취향을 따른 결정에 목록함이 좋지 아니한가. 논어명인 한 구절을 인용한다. “나아 일흔에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從心所欲不踰矩)”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용범(1976. 10. 03.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구좌읍 한동로8길 52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866번지

상기자는 2026년 3월 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7월 7일 제주지방법원 2026-년532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우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로8길 52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866번지
• 송달장소 : 제주시 남평북5길 12, 4층(이도이동 1082-3)
• 송달영수인 : 임정현

2026년 7월 1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창 근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응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증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모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